

2025/26년 호주 농업 전망: 축산부문

강지석*

1. 개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은 호주의 주요 농업·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주 농업 생산 및 수출의 가치·물량·가격과 경종·목축 농가(Broadacre farm¹⁾)의 평균 경영성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세계 농산물의 가격·수요·공급에 대한 ABARES의 전망을 토대로 작성된다. 각 분기 보고서에서는 대외 여건 변화가 호주 생산자와 생산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도 함께 제시한다. 한편 6월호는 호주 회계연도(7월~다음 해 6월) 기준 다음 연도에 대한 전망을, 9월호와 12월호는 당해 연도에 대한 단기 전망을 담고 있다.

2025년 12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5/26년 호주의 축산 및 축산물 부문 총생산액(gross value of production)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60억 호주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품목의 가격 전망이 상향되면서 총생산액 전망치도 2025년 9월호 보고서 대비 45억 달러(11%)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소와 양의 가축경매시장 거래가격 전망치는 최근 시장 여건과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 수요, 이에 따른 가공업체 수요 확대를 반영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소·송아지 생산액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219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 연구원(jskang@krei.re.kr).

본고는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에서 2025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December Quarter 2025' 중 제4장(Outlook for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을 번역·정리한 것임.

1) Broadacre farm은 ABARES의 농가 분류상 곡물재배, 경종·축산 복합농업, 육우 사육, 양 사육, 양·육우 복합사육 등을 포함하는 농가군을 의미하며, 관련 조사는 농업활동 추정가치(EVAO) 4만 호주달러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함.

호주달러, 양·램은 20% 증가한 69억 호주달러로 예상된다. 우유는 10% 증가한 59억 호주 달러, 돼지·가금·계란은 2% 증가한 77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2025/26년 호주의 축산 및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70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소고기·생우, 양고기·생양, 양모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제품은 원유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품목별 흐름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축산물 수출액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축산 및 축산물 연간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도축 생산액	소와 송아지	12,974	17,701	20,861	17.8
	양(Sheep)	573	1,084	1,296	19.6
	램(lamb)	3,604	4,592	5,516	20.1
	돼지	1,834	2,014	2,116	5.0
	가금류	4,057	4,150	4,228	1.9
	염소	102	171	339	98.0
	기타	62	63	64	1.3
생축 수출액	소	967	960	1,040	8.4
	양	46	56	59	5.5
	염소	8	4	4	2.0
	기타	199	198	231	17.0
축산물 생산액	양모	2,852	2,595	2,846	9.7
	원유	6,234	5,405	5,920	9.5
	계란	1,287	1,388	1,396	0.6
	꿀 및 양봉 산물	136	118	122	3.5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		34,936	40,499	46,038	13.7
축산 및 축산물 총수출액		29,486	34,350	37,025	7.8

- 주 1) 생산액과 수출액은 호주달러 기준임.
- 2) 생산액에는 생축 수출액이 포함됨.
- 3) 소와 송아지는 젖소를 포함함.
- 4) 양, 램, 돼지는 가죽 및 피혁 가치를 제외함.
- 5) 소(생축) 수출액은 비육·도축용, 번식용, 낙농용을 포함한 모든 우를 포함함.
- 6) 양(생축) 수출액은 번식용 가죽을 포함함.
- 7) 양모는 전지모, 펠몽거 처리 양모 및 양가죽 부착 양모를 포함함.
- 8) 원유는 유제품 반입량을 기준으로 농가수취가격으로 평가함.
- 9)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보고서는 2025/26년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소고기 수입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 남부 지역의 고온 가능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생물보안 리스크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ABARES 2025년 12월호 원문 중 축산 및 축산물 부문 내용을 바탕으로, 양모(Wool)를 제외한 주요 품목(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을 대상으로 ① 생산 전망, ② 무역 전망, ③ 가격 전망, ④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품목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육류 전망

2.1. 소고기(Beef and veal)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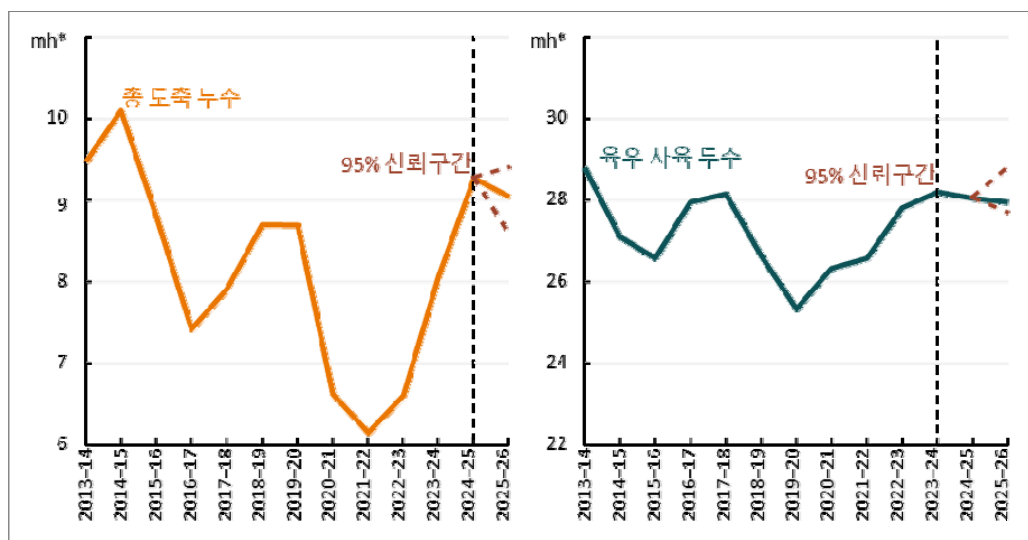
2.1.1. 생산 전망

2025/26년 호주의 육우 사육 두수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2,800만 두로 전망된다. 사육 두수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일부 지역의 번식 기반 변화는 향후 생산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 등의 암소 도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번식 암소와 후보우 규모가 축소되면서 송아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 번식 성적이 향상되어 이러한 감소 폭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암소 출하가 생산성이 높은 어린 후보우보다 생산성이 낮은 고령 암소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번식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육기반 변화로 2025/26년 도축 두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에는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감축 성격의 도축이 확대되었으나, 2025/26년에는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입식 유인이 강화되면서 도축·출하 물량이 점차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퀸즐랜드는 도축 가능한 개체 수가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피드롯(feedlot) 이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가격 여건과 맞물려 전체 도축 감소폭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2025/26년 총 도축 두수는 기상 여건과 가격

수준에 따른 생산자의 보유·출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860만~940만 두 범위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그림 1〉 연간 소 도축 두수와 육우 사육 두수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추정치 및 전망치임.
 2) mh는 백만 두를 의미함.
 3) ^는 ABARES farmpredict에 기초한 95% 신뢰구간임.
 4)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자료: ABARES(2025: 41).

이에 따라 2025/26년 호주의 소고기·송아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 2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0년 평균 대비 20%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출하 확대 이후 도축이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기상 여건이 예상보다 더 개선될 경우 생산자의 보유 기간이 늘어나 도축은 추가로 감소할 수 있으나, 평균 도체중 증가가 생산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표 2〉 소 사육 및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 천 두(도축), 천 톤,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전체 소 사육 두수	30	30	30	-0.5
육우 사육 두수	28	28	28	-3.3
도축 두수	8,080	9,275	9,045	-2.5
소고기 생산량	2,397	2,763	2,684	-2.9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생산량에는 통조림 소고기의 도체중 기준으로 환산량이 포함됨.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2. 무역 전망

2025/26년 호주의 소고기 수출량은 1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로 수출 여력은 다소 축소되지만, 국제 시장의 수요가 높아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은 약 8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가격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184억 호주달러가 예상된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여건을 살펴보면,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으로 미국 내 소고기 생산량 감소와 가공용 수요 확대가 호주산 수입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주요 시장이나, 소고기 수입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소고기 및 생우 수출 전망

단위: 천 톤, 천 두, 백만 달러, 달러/kg, 달러/두,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소고기	수출량	1,288	1,535	1,502	-2.2
	수출액	12,378	16,095	17,395	8.1
	평균 수출단가	9.6	10.5	11.6	10.5
생우	수출 두수	611	687	661	-3.8
	수출액	761	770	840	9.1
	평균 수출단가	1,245	1,120	1,271	13.5

주 1) 수출액과 평균 수출단가는 호주 달러 기준임.

2) 수출량과 수출 두수는 모든 소(bovine)를 포함함.

3) 평균 수출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로 나누어 산출함.

4)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2025/26년 생우 수출 두수는 국내 가격 강세와 일부 수입국의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66만 두 내외로 전망된다. 평균 수출가격은 두당 1,270 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평균가격과 인도산 버팔로(물소) 고기 수출 증가로 베트남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의 수입 수요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렘피스킨병(LSD)과 구제역(FMD)의 영향으로 소 사육 두수가 크게 감소해 호주산 생우에 대한 수입 수요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1.3. 가격 전망

2025/26년 소 경매장 지표가격(Cattle Saleyard Indicator Price)은 주요 수출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재입식 수요 확대에 따른 출하 조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한 평균 785 호주센트/kg(도체중 기준)로 전망된다. 이는 실질 기준으로 10년 평균보다 15% 높은 수준이며, 명목 기준으로는 2021-22년의 이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4〉 소 가격 및 미국 소고기 수입 가격 전망

단위: 호주센트/kg, 미국센트/kg,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경매장 지표 가격	466	610	785	28.7
미국 수입 소고기 가격	549	654	740	13.2

주 1) 가축경매장 소 가격은 MLA의 Heavy Steer 및 Processor Cow 지표가격의 평균임.

2) 미국 수입 소고기 가격은 Cow 90CL 기준 미국 CIF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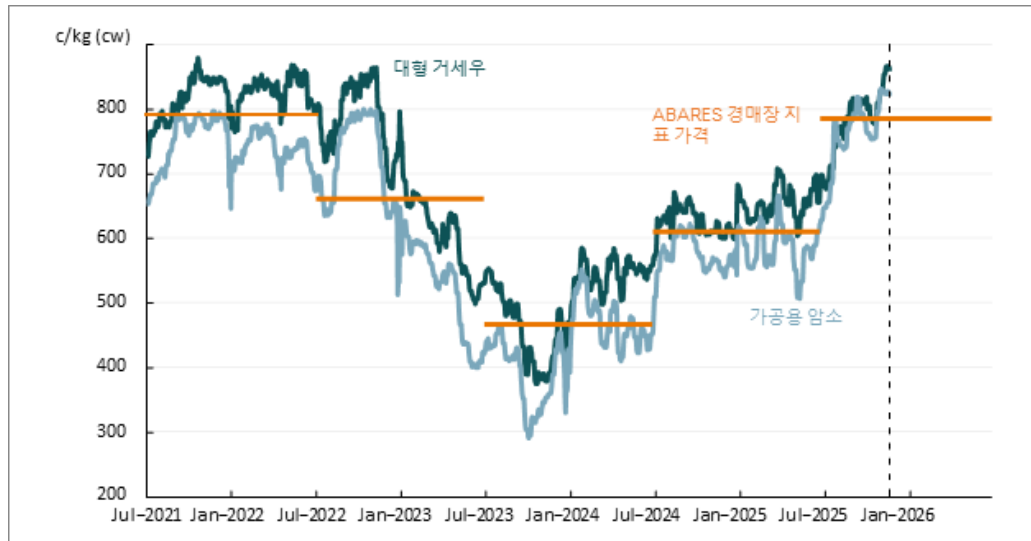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저지방 트리밍에 대한 가공업체 수요도 강세를 보이면서 경매장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남부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자의 재입식 수요가 확대되어 경매장에서의 매입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퀸즐랜드 등 일부 지역은 도축 가능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해 재입식 수요가 남부 지역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수출 수요와 재입식 수요가 함께 가격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업체용 암소와 대형 거세우 가격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저지방 트리밍 수요 확대 영향으로 가공용 암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암소와 거세우 간 가격 격차도 과거보다 축소되는 모습이다.

〈그림 2〉 일별 소 가격지표와 ABARES 경매장 지표가격



주 1) 가격은 호주센트 기준임.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전망치임.

3) 경매장 지표가격은 MLA의 전국 대형 거세우 및 가공용 암소 지표가격 평균

자료: ABARES(2025: 36).

전반적으로 2025/26년 호주의 소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기 후 전망이 중립적인 가운데 최근 호주의 소고기 수출 경쟁국들이 시장 접근(통상·검역 등) 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5/26년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4. 불확실성과 위협요인

2025/26년 호주의 소고기 산업 전망에는 통상정책 변화와 기상 여건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는 글로벌 소고기 교역 흐름과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일본·한국 등 호주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요한 경쟁국이며, 미국 시장에서도 브라질·캐나다·뉴질랜드 등과

경쟁하고 있어 향후 관세 부과 여부, 시행 시기, 적용 범위 등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상대적 경쟁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소고기 공급 여건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고기 생산국의 생산 여건 변화는 국제 소고기 가격과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호주산 소고기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요 경쟁국의 생산 회복 속도에 따라 국제 시장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기상 여건 또한 호주 소고기 산업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다. 기상 조건은 초지 생산성과 가축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사육 두수, 도축 물량, 평균 도체중 등 생산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상 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변동할 경우 생산과 가격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2025/26년 호주 소고기 산업은 비교적 높은 생산과 수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 전망은 통상 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 여건, 국제 수요 흐름, 기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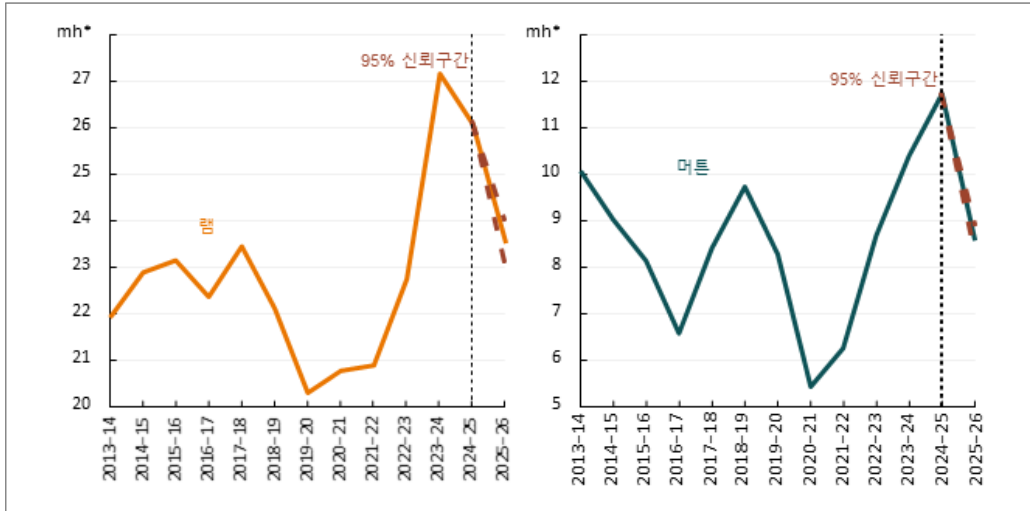
2.2. 양고기(Lamb and mutton) 전망

2.2.1. 생산 전망

2025/26년 호주의 양 사육 두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6,690만 두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양 생산 지역의 기상 여건 개선으로 생산자들이 번식용 암컷 램(ewe lambs)의 보유 의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매시장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출하 의향이 높아지고 있어, 사육 두수 회복세는 다소 더뎠을 가능성이 있다.

사육 두수는 증가하지만 도축 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번식기 초반의 건조한 여건으로 수태율이 낮아지고 분만 시기가 늦어지면서, 통상적인 봄철 집중 출하 시기에 도축·가공에 투입될 수 있는 램 개체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 여건 개선과 양모 가격 상승으로 농가가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암양을 농장에 남겨두려는 경향도 도축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축 규모는 향후 몇 달간의 가격과 강수 여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2025/26년 램 도축 두수는 2,310만~2,400만 두, 머튼 도축 두수는 830만~870만 두 범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연간 양(램, 머튼) 도축 두수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추정치 및 전망치임.
 2) mh는 백만 두를 의미함.
 3) ^는 ABARES farmpredict에 기초한 95% 신뢰구간임.
 자료: ABARES(2025: 43)

도축 감소에 따라 2025/26년 호주의 양고기 생산량은 79만 3천 톤(도체중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램 고기 생산량은 57만 6천 톤으로 8% 감소하고, 성체 양고기 생산량은 21만 8천 톤으로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기상 여건이 예상보다 더 개선될 경우 생산자들이 사육 기간을 늘리면서 도축 물량은 추가로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 도체중 증가가 생산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표 5〉 양 사육 및 생산 전망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전체 양 사육 두수	69.7	64.3	66.9	4.0
램 도축 두수	27,146	26,060	23,500	-9.8
머튼 도축 두수	10,399	11,741	8,570	-27.0
양고기 생산량	916	919	793	-13.7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으로 환산함.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2. 무역 전망

2025/26년 양고기 수출은 물량과 금액의 흐름이 엇갈릴 전망이다.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 줄어든 55만 6천 톤이 예상되지만, 수출액은 평균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 증가한 62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은 호주산 양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견고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주요 수요처로서 수출가격을 지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과 중동 지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수요도 최근 호주산 소고기와 양고기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2025/26년 생양 수출량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출하로 수출 가능 개체 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8% 감소한 32만 두로 전망된다. 또한 2024/25년 호주의 생양 선박 수출이 집중된 서호주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계절 여건이 조성되면서, 생산자들이 양을 국내 가공용 도축체중까지 비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 점도 생양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6〉 양고기 및 생양 수출 전망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천 두, 달러/두,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양고기	수출량	629	651	556	-14.7
	수출액	4,783	5,664	6,238	10.1
	평균 수출단가	7.6	8.7	11.2	29.1
생양	수출 두수	507	444	320	-27.9
	수출액	46	56	59	5.5
	평균 수출단가	91	126	184	46.2

주 1) 생양은 번식용 개체를 포함함.

2) 수출액은 호주달러 기준임.

3) 평균 수출단가는 수출액(또는 수출 두수)로 나누어 산출함.

4)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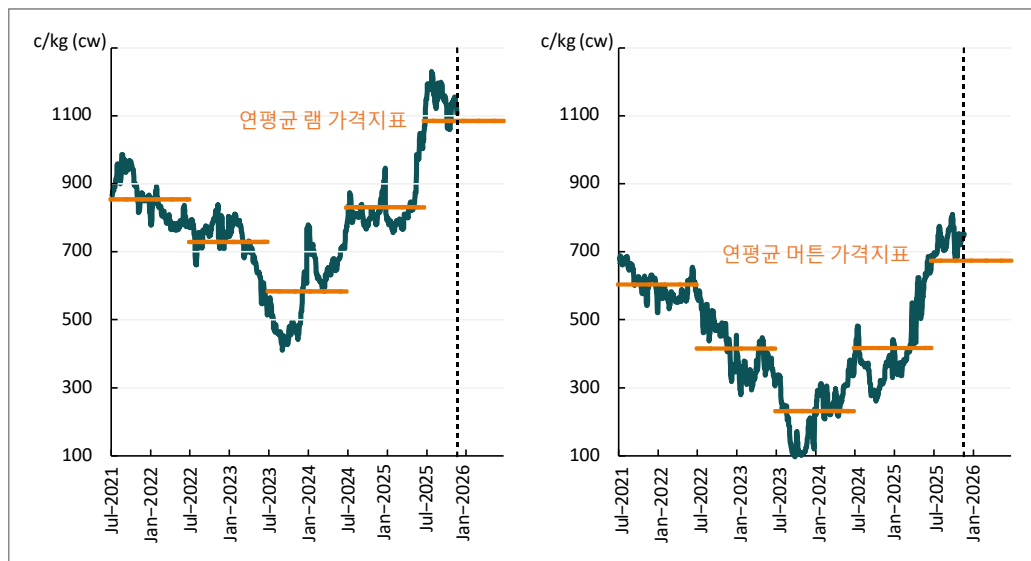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3. 가격 전망

2025/26년 호주의 양고기와 양 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램 산지경매 가격은 전년 대비 31% 상승한 kg당 1,085호주센트(도체중 기준)로 전망된다. 최근(2025/

26년) 어린 양 경매가격은 지속적으로 kg당 1,000호주센트를 웃돌고 있으며, 8월 초에는 전국 램 거래지표가격이 kg당 1,231호주센트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재입식을 추진하는 생산자와 견조한 세계 수요에 대응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가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출하 시즌 후반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램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연중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림 4〉 일별 양 가격 지표와 연평균 가격



주 1) 가격은 호주센트 기준임.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2025: 38).

머튼 산지경매가격은 전년 대비 63% 상승한 kg당 674호주센트(도체중 기준)로 전망된다. 최근 머튼 가격은 공급 감소와 가공업체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램 가격 상승으로 가공업체들이 가동률과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머튼 조달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도 2025/26년 램과 머튼 가격은 각각 최근 10년 평균보다 27%, 24% 높은 수준이 예상되며, 램 가격은 실질 가격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표 7〉 양 가격 전망

단위: Ac/kg,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램 가격 지수	584	830	1,085	30.8
머튼 가격 지수	231	415	674	62.5

주 1) 램과 머튼 가격은 전국 거래지표가격임.

2)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4.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2025/26년 호주의 양 산업 전망에 따르면 기상 여건과 가격 변동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기상 조건은 초지 생산성과 번식 성적, 출하 시기, 평균 도체중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강수와 기온 여건이 전망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사육 두수와 도축 물량, 생산량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계절 여건이 예상보다 더 양호할 경우 생산자들이 램의 사육 기간을 늘려 더 무거운 중량으로 출하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도축은 감소하고 평균 도체중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상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사육기반 회복이 지연되고 조기 출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격 변동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램과 머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생산자의 출하 및 보유 결정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높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출하를 자극할 수 있으나, 동시에 번식용 암컷과 램의 보유를 통한 사육기반 회복 유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격 수준에 따라 도축 규모와 출하 시기, 사육 두수 증가 폭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 수요와 국제시장 여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호주산 램과 머튼에 대한 세계 수요가 가격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주요 수입국의 경기 여건과 소비 흐름, 경쟁국의 공급 상황 변화에 따라 수출가격과 수출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하면 2025/26년 호주 양 산업은 기상 여건, 가격 변동, 국제 수요 흐름에 따라 실제 사육·도축·생산·가격의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전망치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2.3. 돼지고기(Pig meat) 전망

2.3.1. 생산 전망

2025/26년 호주의 돼지 도축 두수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579만 8천 두로 전망된다. 또한 돼지의 평균 도체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8만 8천 톤(도체중 기준)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산 증가는 사료용 곡물과 수입 단 백질박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에 기인한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 확대와 소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소비도 돼지고기 생산 증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돼지고기 생산 전망

단위: 천 두, 천 톤,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도축 두수	5,799	5,759	5,798	0.7
생산량	468	473	488	3.1

주 1)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임.

2)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2. 무역 전망

2025/26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량은 4만 2,500톤으로 4%, 수출액은 2억 1,620만 호주달러로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돼지고기 산업은 내수 중심 성격이 강해 무역보다는 국내 수요 확대와 생산 여건 변화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공육 수요 증가와 수입 가격 상승도 향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표 9〉 돼지고기 수출 전망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수출량	42.5	40.8	42.5	4.3
수출액	211	207	216	4.5

주 1) 수출량은 도체중 기준임.

2) 수출액은 호주달러 기준임.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3. 가격 전망

2025/26년 호주의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전국 평균 지육 기준(over-the-hook) 돼지 가격은 전년보다 5% 상승한 kg당 458 호주센트(도체중 기준)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소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소비가 돼지고기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염지육과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호주산 돼지고기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10〉 돼지고기 지육 직거래 가격 전망

단위: 천 두, 천 톤, kg,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지육 직거래 가격	396	438	458	4.6

주 1) 지육 직거래 가격은 over-the-hooks price 기준임.

2) 지육 직거래 가격은 호주달러 달러 기준임.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4.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2025/26년 호주의 돼지고기 산업은 수입가격 변동, 생산비 변화, 고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용 곡물과 수입 단백질박 가격 하락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나, 향후 국제 곡물가격과 단백질박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생산 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주요 위험요인이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될 경우 돼지의 건강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냉방·환기 등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늘어나 생산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요 및 가격 여건의 변화도 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소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은 돼지고기 수요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 수요 확대 폭은 경기 여건과 소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변동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상대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가금류(poultry) 전망

2.4.1. 생산 전망

2025/26년 호주의 가금류 산업은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닭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7억 7,100만 수로 예상되며, 닭고기 생산량은 158만 1천 톤(도체중 기준)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 확대와 소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소비 증가, 사료비 부담 완화의 영향이다. 특히 사료용 곡물과 수입 단백질박 가격 하락은 생산비를 낮춰 가금류 생산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닭고기 생산 전망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도축	734	752	771	2.5
생산량	1,449	1,535	1,581	3.0

주: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2. 무역 전망

2025/26년 호주의 가금육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가금육 수출량은 4만 6,538톤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하고, 수출액도 1억 1,992만 호주달러로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금육 부문은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어, 무역 확대보다는 내수 수요 증가와 생산 확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12〉가금육 수출 전망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수출량	50.3	45.0	46.5	3.4
수출액	130.8	116.1	119.9	3.3

주 1) 수출량은 닭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고기, 기타 가금육을 포함함.

2) 수출액은 호주달러 달러 기준임.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3. 가격 전망

2025/26년 호주의 가금육 가격은 kg당 259 호주센트(도체중 기준)로 전년보다 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증가와 소고기·양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소비로 가금육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료용 곡물과 수입 단백질박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공급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가금육 가격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7%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4.4.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2025/26년 호주의 가금류 산업은 고온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호주 기상청은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년보다 더운 여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 전반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극심한 고온은 집약적 축산의 건강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금류의 경우 환기, 물 분사, 냉방, 차광 등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필요해 생산비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주의 가금육 및 계란 산업에 여전히 중요한 위협요인이다. 질병 발생 시 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향후 가금류 산업의 수급과 시장 흐름은 방역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5. 유제품 전망

2.5.1. 생산 전망

2025/26년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81억 6,500만 리터로 전년 대비 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젖소의 두당 산유량은 6,354 리터로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농가 감소로 젖소 사육 두수가 전년 대비 2% 감소한 128만 5천 두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낙농 시즌 초반의 고온·건조한 날씨로 초지 생육이 부진했던 점도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요 지역의 원유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생산량 감소와 안정적인 시유 판매로 제조용 원유 물량이 줄어들면서 치즈, 분유 등 주요 유제품 생산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용 원유가 58억 1,600만 리터로 전년 대비 3% 감소하고, 버터, 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도 각각 0.5~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원유 및 주요 유제품 생산 전망

단위: 천 두, 리터/두, 백만 리터, 천 톤,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젖소 사육 두수	1,330	1,314	1,285	-2.2
두당 산유량	6,298	6,328	6,354	0.4
원유 생산량	8,376	8,315	8,165	-1.8
음용유 판매	2,383	2,340	2,349	0.4
제조용 원유	5,993	5,975	5,816	-2.7
버터	68	41	41	-0.5
치즈	386	432	418	-3.1

(계속)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전지분유	26	28	26	-6.2
탈지분유	155	171	165	-3.3

- 주 1) 젖소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 2) 두당 산유량은 착유우와 건유우를 포함한 기준임.
- 3) 버터는 2024/25년 이전에 버티오일, 버터농축물, 무수유지, 기(ghee)의 버터 환산량을 포함함.
- 4) 치즈는 가공치즈를 제외함.
- 5)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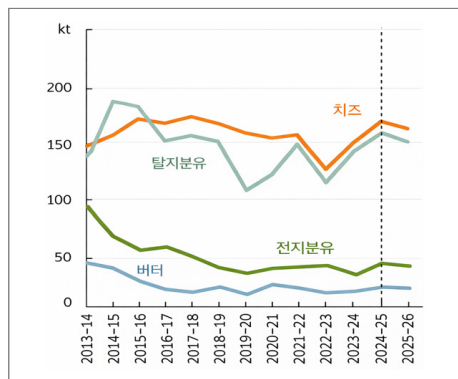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2. 무역 전망

2025/26년 호주의 유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원유 생산 감소로 가공에 투입할 수 있는 원유 물량이 줄어들면서 유제품 생산과 수출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가 이탈에 따른 낙농 사육 두수 감소와 시즌 초반의 고온·건조한 기상 여건도 원유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25/26년에는 주요 호주 유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유제품 공급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치즈와 버터 등 고지방 유제품의 가격 하락 폭이 탈지분유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며, 전지분유 가격도 뉴질랜드의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최근 고점에서 하락할 전망이다. 수출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26년 유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35억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그림 5〉 호주 유제품 수출량



자료: ABARES(2025: 46)

〈표 14〉 유제품 수출액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수출액
2023/24	3,377
2024/25(s) (A)	3,727
2025/26(f) (B)	3,538
증감률(B/A)	-5.1

주 1) 수출액은 호주달러 기준임.

2)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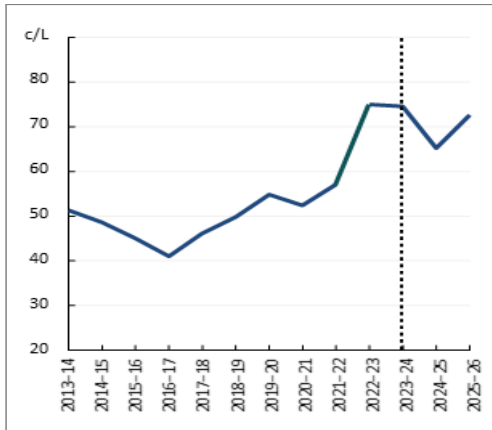
2.5.3. 가격 전망

2025/26년 호주의 산지 원유가격(farmgate milk price)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리터당 72.5호주센트로 전망된다. 유고형분 기준으로는 kg당 약 9.5호주달러 수준이다. 이는 국내 원유 생산 감소로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공업체 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질가격 기준으로도 2025/26년 산지 원유가격은 2024/25년까지의 최근 10년 평균보다 9%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요 호주 유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은 2025/26년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유제품 공급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기상 호조와 높은 원유가격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반구 주요 수출국들도 질병 영향 완화와 산유량 개선으로 수출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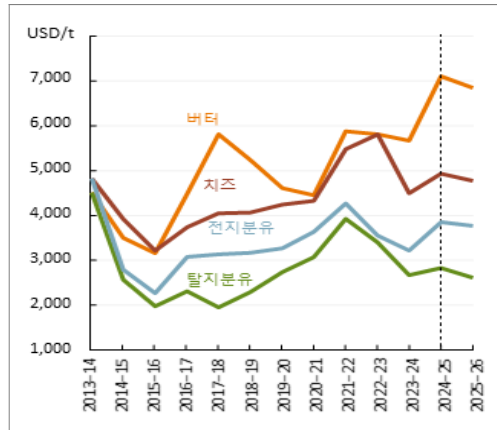
품목별로 보면, 치즈와 버터 등 고지방 유제품의 수출가격 하락 폭은 탈지분유(SMP)보다 작을 전망이다. 이는 분유류보다 치즈에 대한 국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해 글로벌 생산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탈지분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지분유(WMP) 가격도 뉴질랜드의 공급 증가로 최근 고점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연평균 원유 산지 가격



자료: ABARES(2025: 40).

〈그림 7〉 연평균 유제품 수출가격



자료: ABARES(2025: 40).

주요 유제품의 국제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버터 가격은 톤당 6,842달러로 전년 대비 4%, 치즈는 4,765달러로 3%, 탈지분유는 2,608달러로 8%, 전지분유는 3,758달러로 2%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뉴질랜드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생산 회복과 글로벌 공급 증가가 국제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2025/26년 유제품 가격은 국내 산지 원유가격은 상승하고 국제 유제품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표 15〉 국제 유제품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

	2023/24	2024/25(s) (A)	2025/26(f) (B)	증감률(B/A)
버터 국제가격	5,667	7,096	6,842	-3.6
치즈 국제가격	4,483	4,921	4,765	-3.2
탈지분유 국제가격	2,667	2,819	2,608	-7.5
전지분유 국제가격	3,204	3,846	3,758	-2.3

주 1) 국제 가격은 미국달러 기준임.

2) 국제가격은 보조금 판매를 제외한 거래가격의 가중평균임.

3) s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december-2025>, 검색일: 2026.1.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4.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2025/26년 호주의 원유·유제품 산업은 기상 여건, 국내 원유 생산 감소, 세계 수급 변화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낙농 시즌 초반의 고온·건조한 날씨로 초지 생육이 부진했던 점은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요 지역의 원유 생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상 여건 악화는 원유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상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 감소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속적인 낙농가 이탈로 젖소 사육 두수까지 줄어들면서 원유 생산의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용 원유 물량이 줄어들면서 유제품 생산과 수출도 함께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유제품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부 수입국의 경기 둔화가 수입 수요를 제약하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 소비 부진과 자국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가 유제품 수출을 일부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요약 및 시사점

2025/26년 호주 축산부문은 품목별 수급 여건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격 강세가 생산액과 수출액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소고기와 양고기는 사육 및 도축 조정으로 생산 증가가 제한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국제 수요와 가축가격 강세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유제품은 낙농가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이 줄어들면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사료비 부담 완화와 내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즉, 2025/26년 호주 축산부문은 물량 확대보다는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성장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보면, 소고기와 양고기 부문은 국제시장에서의 수요 강세가 가격 상승과 수출액 증가를 이끌고 있는 반면, 유제품은 산지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급 회복과 주요 수입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수출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같은 축산부문 내에서도 육류와 유제품의 시장 여건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비와 소비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나라 축산물 수급과 통상 대응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호주산 소고기와 양고기의 가격 강세는 국내 수입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수입 축산물의 가격 변동성과 국내 소비자가격 파급효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의 주요 소고기 수입국인 만큼, 현지의 생산 조정과 수출가격 상승은 국내 소고기 수입 여건과 시장가격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고기의 경우

에도 국제 수요 강세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수입가격과 유통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유제품은 원유 생산 감소로 수출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품목별 가격 흐름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분유·치즈·버터 등 세부 품목별로 수입 여건과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ABARES(2025),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December quarter 2025, ABARES, Canberra.

